

리빙아트 개성공장
준 공 식

축 사

- 일 시 : 2004. 12. 15 (수)
- 장 소 : 리빙아트 개성공장

통일부장관 정 동 영

저는 오늘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깊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인류의 역사는 대립과 갈등에서 통일과 화해로 어김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우리 모두의 신념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석철 사장님을 비롯한 리빙아트 관계자 여러분, 현정은 회장님, 현대아산과 토공 관계자, 그리고 주동찬 단장을 비롯한 북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리빙아트 개성공장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동안 냉전과 군사적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 그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일 뿐 아니라 세계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놓이고, 그 길을 통해 사람과 물자, 차량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 길이 평화의 상징이라면, 이곳 개성공단은 공동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도로와 철도가 본격 개통되어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남과 북의 근로자가 한 공장 안에서, 함께 일해 만든 제품들은 남측으로 판매되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으로 널리 뻗어나갈 것입니다.

리빙아트에서 만드는 그릇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통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과정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녹이고 화해를 만들며, 평화를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양 정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4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 공동번영의 구체적인 결실을 이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참여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개발은 6.15공동선언의 결과이고,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며, 동시에 경제를 통해 세계사적 냉전의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입니다. 협력을 위한 평화, 평화를 위한 협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협력이 올라가면 평화가 증진되고 평화가 증진되면 협력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북측 당국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남과 북의 사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당국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개성공단은 충분히 민족 공동번영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북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평양과 남포가 연결되어 있고, 남으로는 불과 1시간이내에 금융과 물류기능을 갖춘 서울과 인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성의 생산기능, 인천의 물류기능, 그리고 서울의 금융기능이 결합되면, 경쟁력 있는 복합경제특구가 가능합니다. 개성은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대문이 될 것이며,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냉전시대에 꿈꾸지 못했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간다면, 미래는 멀지 않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05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6.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21세기 첫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과 냉전의 시대를 뛰어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2005년이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을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염원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원칙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반도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화해협력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사안들은 북측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더 슬기롭게 처리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같은 사안들 때문에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나가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6개월여 정체되고 있는 것은 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이시점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로가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활발한 소통은 평화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성은 고려의 도읍지로 많은 문화유산과 소중한 전통을 간직한 역사의 도시입니다.

개성은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 복식부기방식을 발명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나라 '개서사리'의 거토요 기니 경제와 무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우리 선조들이 개성에서 꽃피운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와 분단을 가로지르는 열차의
기적소리가 평화와 번영의 신호음이 되어 남과 북으로, 그
리고 온세계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리빙아트 개성공장 준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